

제7강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과 오병이어의 기적

1. 백인대장의 신앙과 그의 종의 치유(7,1~10)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이 백인대장의 종을 치유하신 행위를 언급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을 강조했다.

1.1. 출전, 문학양식과 구조

백인대장의 종을 고쳐주신 기적 묘사(루카 7,1~10)와 비슷한 경우가 마태오 복음(8,5~13)에 나온다. 이 두 서술은 <예수어록>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루카 복음사가는 위의 이야기를 평지설교 바로 다음에, 마태오 복음사가는 산상설교 다음에 나병환자의 치유를 제시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서술했다.

이 대문의 문학양식은 백인대장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고 간접적으로는 치유 기적에 대한 것이다. 루카 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경을 헤매는 종의 상황에 대한 묘사(7,1~2)

둘째, 유다인들의 원로들을 통한 백인대장의 간청(7,3~5)

셋째,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다고 말한 백인대장(7,6~8)

넷째, 백인대장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는 예수님(7,9)

다섯째, 치유된 종(7,10)

1.2. 사경을 헤매는 종의 상황에 대한 묘사(7,1~2)

루카 복음에 나오는 백인대장의 국적이 어디인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 시대에 헤로데 안티파스의 통치지역인 가파르나움에서 로마군을 지도하지 않고, 안티파스의 용병들을 다스린 장교나 오늘날의 경찰서장과 같은 지위의 관리나 갈릴래아를 드나드는 물건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업무를 본 사람이었을 것 같다.(요세푸스, 「유다의 고대풍습」17). 백인대장은 유다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 줄 정도로(루카 7,5) 유다교에 대해 호의적인 이방인이었다(7,9)

1.3. 유다인들의 원로들을 통한 백인대장의 간청(7,3~5)

3절 : 그가 직접 예수께 가지 않은 이유는 자기 종을 돌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유다인들의 원로들’은 노인들(사도 2,17)뿐만 아니라 가파르나움의 유대인 지역 공동체의 고명한 지도자들을 가리킨다(신명 19,1~13; 21,1~9; 예즈 10,14).

이방인 백인대장은 유다인들과 사이 좋게 지내면서 예수께 치유의 은혜를 간청했다. 백인대장은 예수님을 직접 뵈지도 않고서 그분이 자기 종을 임박한 죽음에서 구해 주

실 수 있음을 믿고 따르는 모범을 보여준다.

4~5절 : 원로들은 그의 호의와 선물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1.4.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다고 말한 백인대장(7,6~8)

6절 : 루카 복음사가는 백인대장이 두 번이나 원로들뿐 아니라 자기 친구들까지 예수께 보냈다는 진술을 통해 그가 존경을 표시하고 예의를 차렸음을 강조했다.

7절 : 그는 예수님이 몸으로는 비천한 자기 집에 현존하지 않으셔도 한마디 말씀의 힘으로 원격조정을 통해 치유하실 수 있는 권능을 지니신 분임을 믿었다.

8절 : 백인대장이 예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자기 종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여긴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백인대장이 군대조직에서 부하가 상관인 자기에게 순종하듯이, 영적인 세력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5. 백인대장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는 예수님(7,9)

9절 : 예수께서는 백인대장의 믿음을 칭찬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비판하시고 우리에게도 백인대장을 본받아 당신을 믿고 따르라고 종용하신다.

1.6. 치유된 종(7,10)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치유활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파견된 친구들이 돌아와서 종이 치유된 것을 확인했다고 서술했다. 그것은 루카 복음사가가 치유행위보다 백인대장의 믿음을 강조한 데 기인한다. 루카와는 달리 마태오 복음사가는 예수께서 백인대장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대답하신 순간에 그의 종이 치유되었다고 서술했다.(마태8,13) 이렇게 백인대장이 인정한 예수님의 권능(루카 7,8)이 그분께서 직접 그 종에게 가지 않으신 채 실현되었다.

2.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9,10~17)

2.1. 출전, 문학양식과 구조

루카 9,10~17까지는 루카 복음 사가가 마르코 복음 6,30~44까지에서 따와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예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한 전통은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데 비해(루카 9,10~17; 마르 6,32~44; 마태 14,13~21; 요한 6,1~15), 사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한 전통은 마르코 복음(8,1~10)과 마태오 복음(15,32~39)에만 나온다. 오천 명을 위한

빵의 기적에 대한 서술(마르 6,32~44)과 사천 명을 위한 빵의 기적에 대한 진술(8,1~10)이 거의 같은 주제들로 취급되어서, 루카 복음사가는 마르코, 마태오 복음에서 빵의 기적이 두 번 제시된 것을 보고 중복으로 여겨 하나만을 택했거나 이 둘을 합해서 한 기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 복음에서도 예수께서 사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나오지 않고 다섯 개의 빵과 두 마리의 물고기를 많게 하여 오천 명을 먹이셨다는 전통만을 제시한다.

루카 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문학양식은 기적사화이다. 이 대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도들의 귀환(9,10ㄱ)

둘째, 예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9,10ㄴ~17)

2.2. 사도들의 귀환(9,10ㄱ)

10절 ㄱ : 그들이 활동한 곳, 활동내용과 군중에게 예상할 수 있는 반응들은 9,1~6까지 제시되어 있다.

2.3. 예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9,10ㄴ~17)

(가) 도입(9,10ㄴ~11)

10절 ㄴ : 예수께서 열두 사도들을 데리고 사적으로 ‘베싸이다’라는 도시로 철수하신 이유는, 사명을 이행하느라고 고생한 사도들을 쉬게 하시거나 별도의 교육을 하시기 위한 것 같다.

베싸이다(‘사냥터’)는 필립보 영주가 마을 규모에서 도시 규모로 재건하여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딸을 존경하는 뜻으로 ‘율리아’라는 이름을 붙인 곳이다. 이 도시는 필립보의 통치지역으로서 갈릴래아에 속하지 않고 골라니티스(Gaulanitis)지역 안에 있다. 마르코 복음(6,45)과 요한 복음(12,21)에서 베싸이다를 갈릴래아 호수 건너편, 북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제시한 것은 대중들의 혼돈에 기인한 것 같다. 이곳은 필립보,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성실다(요한 1,44).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도시 안까지 가지 않고 그 근처의 황량한 곳까지 가신 것 같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황량한 곳에서’ 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군중을 보내시라고 예수께 말씀드렸던 것이다(루카 9,12).

마르코 복음(6,32)에서는 예수께서 빵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막연하게 인적이 끊긴 곳이고, 베싸이다는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이 기적 이후에 가신 곳이다(마르 6,45).

11절 : 예수님은 군중을 피하지 않으시고 맞아들이시어 하느님 나라의 재림이 병자치유와 빵의 기적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구원활동은 하느님의 왕권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이다(루카 4,38~44:

6,17~19: 7,22)

(나) 음식이 없는 군중(9,12)

12절 : 루카 복음사가는 사도들이 마르코 복음에 나오지 않는 군중의 숙박문제를 거론했다고 서술했다. 또 그는 인적이 끊긴 곳에서 먹을 것을 산다는 마르코 복음의 표현을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 ‘음식을 구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마르 6,36과 비교)

(다) 무능한 제자들(9,13)

13절 : 루카 복음사가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군중(마르 6,38)이 아니라 사도들이라 서술했다. 그것은 그가 제자들의 능력이 너무나 미약하고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처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의 권능에 호소하려 하지 않고, 시장에 가서 음식을 구입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않은 채 걱정만 하고 있었다.

루카 복음사가는 제자들이 군중을 먹이기 위해 2백 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사야 한다고 말한 것(마르 6,37)을 생략했다. 왜냐하면 이 돈으로는 빵을 충분히 살 수 없을 뿐더러(요한 6,7)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라) 빵을 많게 하신 예수님(9,14~16)

14~15절 :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께서 직접 군중을 앉게 명령하셨다는 마르코 복음(6,39~40)과는 달리 사도들을 시켜 군중을 앉게 하셨다고 서술했으므로써 사도들의 중개역할을 강조했다.

16절 :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군중을 지속적으로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힘을 지닌 분이심을 강조한다. 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그것을 축복하신 것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도움을 청하는 자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빵을 군중에게 주심으로써 그들이 당신의 권능을 통해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백성은 예수 메시아께서 양성하신 사도들을 통해 메시아의 축복 속에서 잔치를 즐겼던 것이다.

빵을 든다라던지, 하늘을 우러러 축복한다는 것이든, 군중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든 이러한 용어들이 최후의 만찬에 나온다고 해서 성체성사의 용어들이라고 단정할 수 어렵다. 그것들은 일상적 식사 때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남은 음식의 양(9,17)

17절 : ‘열두 광주리’라는 말의 깊은 뜻은 하느님이 예수 메시아를 통해 당신 백성에게 베푸신 선물이 풍성하게 흘러 넘쳤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엄청난 선물을 받은 군중의 응답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것이다.(루카 9,18~20)